

2002 동아리 문화제 22일까지 열려

연합공연, 시연 등 재미를 강조한 프로그램 마련

지난 14일 음악 1분과의 연합공연을 시작으로 2002 동아리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일주일동안 음악1분과의 공연을 비롯하여 체육분과의 합동시연회, 예술분과의 Art&Live BAR 등의 연합 프로그램과 각 동아리의 특성을 살린 상설마당 등 재밌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캠퍼스를 가을 축제 분위기로 물들이고 있다. 올해에는 음악 1분과, 체육분과, 예술분과 등 세 분과에서 참가했다.

특히 이번 동아리 문화제는 재미에 중점을 둔 일정으로 학우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한 행사들이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강적, 구토스, 통틀무렵, 뮤즈, 여섯줄, 인피니트, 창작동화, 푸른소리 등 8개의 음악분과 동아리들이 준비한 연합공연은 봄학기부터 시작된 오랜 준비기간만큼 4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분위기를 내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펼쳐 대강당을

뜨겁게 달구었다. 체육분과에 소속된 동아리들은 19일 밤 학부체육관에서 그동안 연마해 온 실력을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비각의 택견, 바숨의 기수련, 활화산의 태권도, 해동검도와 검우회의 검도 등 한 자리에서 다양한 무술을 감상할 수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KAIST 최초의 LIVE BAR로 선보일 예술분과의 'Art&Live BAR'이다. 21일 오후 8시에 열린다. 여러 지하 밴드 동아리들과 댄스 동아리 일루전의 공연과 함께 피아노 연주, 영화 상영, 사진과 그림 전시 등 각종 이벤트가 펼쳐진다. 작년에 예술분과에서 준비한 '문화카페'가 태울관 지하에서 열려 추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학우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학부식당을 빌려 실내에서 bar 형태로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제공하며 마지막 밤을 장식할 예정이다. 여러 동아리

들의 연합 프로그램 외에도 각자의 특성을 살린 공연, 상영회, 상설마당과 각종 무대행사도 연이어 펼쳐진다. 지난 15일 금요문화행사로 코러스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고, 18, 19일 양일에 걸쳐 상그릴라의 애니메이션 상영회, 동아리 문학의 뜨락의 시 낭송회, 음악감상부의 Blue Day Book 상영회, 그리미주아, 목향의 가을 정기 전시회 등 각종 행사가 차례로 열려 가을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제 11대 동아리 연합회장 황원일 학우는 "동아리 문화제는 많은 동아리들이 한 해 동안의 성과물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가을의 축제다"라며 "날씨는 춥지만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여 동아리들이 내뿜는 열기를 만끽하였으면 좋겠다"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지연 기자 aemir@kaist.ac.kr

17대 학부 총학 선거 세 후보팀 경선 펼쳐

오는 11월 28일 제 17대 학부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진다. 20일 자정까지가 등록기간이며 21일부터 1주일간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25일에는 태울관 미래관에서 각 후보자들과 언론사와 재학생들이 모여 정책에 대해 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후보로 세 팀이 등록했다. 전의주(산업공학과 99)-소희선(산업디자인학과 99), 최상덕(생물과학과 00)-강대성(생물과학과 00), 이종열(응용수학전공 00)-강태종(응용수학전공 00) (정후보-부후보) 학우이다. <후보자 인터뷰 5면>

후보자 등록 요건은 현재 학사과정에 재학중이면서 40학점이상을 취득했거나 3학기 이상을 수학한 학우로 정해져 있다. 제출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포함한 후보자의 약력과 선거운동원 명단 및 선거 정책 자료집, 후보자 추천서 등이다.

제 17대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학생회 임원과 동아리 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등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세 팀이나 후보에 등록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낮아 단독출마하거나 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양상을 보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는 학우들이 생활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상현 총학생회장은 "이번 선거에는 후보가 세 팀이나 나와 학우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이 기자 yoonyi01@kaist.ac.kr

내달 4일 '온가족의 밤' 행사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함께 열려

다음달 4일 오후 7시에 대강당에서 '제 6회 KAIST 온가족의 밤'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해동검동회의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오프닝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는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 삽입된 '쇼스타코비치의 세컨 왈츠', 'Plink Plank Plunk' 등을 연주한다. 두번째 무대에서는 해동검도회의 검도 시연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뮤지컬의 세계' 수강생들이 준비하는 Musical Medley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무용의 이해와 실제' 수강생들의 'Line Dance Melody' 댄스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교직원 중창단이 '고향의 노래', '우정의 노래', '아기예수'

등의 곡을 합창한다. 97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이 행사는 교수, 직원,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매년 12월 첫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

홍창선 원장은 "온 가족의 밤 행사는 KAIST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술의 향기를 듬뿍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즐거운 만남을 통하여 한해를 뜻깊게 보내며 교수, 학생, 직원 모두 한 가족으로서의 KAIST를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에 입장하는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예정이다.

박영호 기자 loveviju@kaist.ac.kr

대학원 전학대회 무산

지난 7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학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참여 저조로 열리지 못했다. 원총에서 주관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원총 회장 및 부회장, 생활관자치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각 학과의 석박사 과대표 등이 모이는 자리로,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학대회의 경우 과반수에서 3명이 모자란 14명만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원총 측은 "예전부터 대학원의 경우 전학대회 개최 때 과대표들을 모으기가 힘들었다"며,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하려 했는데 열리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번 전학대회는 내년 2월경 열릴 예정이다

강은진 기자 jinius@kaist.ac.kr



이 가을이 가기전에 그림 한 편...



예술분과 '그리미주아'의 전시회가 18일부터 학부학생회관 2층 다용도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및 취재 김윤이 기자 yoonyi01@kaist.ac.kr